

김관영 “도민의 명령 가슴에 새길 것”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무소속으로 재선 도전했으나 낙선... “모든 책임은 저에게... 결과 겸허히 수용”

“전북 발전·도민 행복 위해 큰 역할 해주길”... 이원택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민 후보’를 지임하며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김관영 후보가 도내 유권자로부터 최종 41.78%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김 후보는 선거 결과가 확정된 뒤 도민들에게 낙선 인사를 전하고 “도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당선된 이원택 후보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그는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원택 후보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전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도민들과 만나며 들었던 목소리를 잊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관영의 뜻은 좌절됐지만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노동현장에서 전해주시는 명령은 오래도록 제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도민들이 보내준 기대와 요구를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선거는 외롭고 험난한 싸움이었지만 결코 쓸쓸하지 않았다”며 “도민들께서 눈빛과 손길로 전해주시는 온전한 목소리를 깊이 새기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사랑하는 도

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했다”며 “선거 기간 보내주시는 성원과 격려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완주한 김관영 후보는 거대 정당 중심의 선거 구도 속에서도 41.78%의 지지를 얻으며 상당한 정치적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에서 광역 단체장으로는 최초로 무소속 출마를 단행해 비록 낙선했지만 이원택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을 벌인 바 있다.

김 지사는 비록 재선 성공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지역 발전 비전과 정치개혁 메시지는 향후 전북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 광역비례 제2당에 ‘혁신당’

민주, 66.15%로 비례 1당... 6석 중 4석 확보

혁신당은 15.28%로 1석... 김나영 당선인이 입석

전주7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박형배 후보 당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지역에서 6·3지방선거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광역비례 제2당에 도내 유권자들은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역 광역비례 총 의석수는 6석으로 지난 8회 선거 대비 2석이 늘어났다.

3일 진행된 투표 결과 민주당 66.15%, 조국혁신당 15.28%, 국민의힘 10.03%, 진보당 4.15%, 기본소득당 1.91%, 정의당 1.77%, 자유와혁신 0.68%로 각각 투표율을 받아 쥐었다.

의석 배분 기준에 따라 민주당이 4석,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석씩 얻게 됐다. 비례 배분의 경우 5%

미만은 득표를 얻은 정당은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 2석, 국민의힘 1석, 진보당 1석에서 조국혁신당은 진보당을 밀쳐내고 동시에 광역비례 득표 2위에 올랐다.

이로써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비례대표에 민주당 윤혜아·박수형·강경희·박병철 당선인이 조국혁신당 김나영 당선인, 국민의힘 이인숙 당선인이 각각 의원 배치를 달게됐다.

한편 개표가 늦어진 전북 광역의원 전주7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형배 후보가 당선됐다. /김재훈 기자

“전북 미래 위한 실천 이어가겠다”

무소속 김성수 도지사 후보

은 경제·지역개발 비전을 도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점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김 후보는 “전북은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부족했고,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축적하고 운영하는 구조가 부족했다”며 “선거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과 실천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을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닌 전북의 미래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재생에너지와 농업, 스마트 팜, 관광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산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해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어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후보는 “도지사 후보로서의 선거는 마무리하지만 세무사이자 전북 경제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라며 “전북의 발전을 위한 일에는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도정이 국가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에 더해 전북 스스로 자산을 만들고 수익을 축적하는 구조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며, 향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전북 발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도민의 선택에 감사... 최우선 마음 잊지 않을 것”

혁신당 도당, 지선 결과 관련

광역비례 1·기초의원 10명

기초비례 6명 등 총 17명 당선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4일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북도민의 선택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1명, 기초의원 1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6명 등 총 17명의 당선인을 배출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변화와 혁신을 선택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전북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북도당은 이번 결과를 마냥 성과로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도당은 “총 17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단 한 명의 기초단체장도 당선시키지 못한 점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는 도민들이 기대하는 변화의 크기에 비해 조국혁신당의 책임과 역할이 아직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자성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성찰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 곁에서 민생을 챙기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성과에는 자만하지 않고 부족함에는 더욱 엄격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히 몇 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정치적 성과를 넘어 오랫동안 지속돼 온 독점 정치와 견제받지 않는 권력 구조에 대한 도민들의 경고이자, 전북 정치에 새로운 경쟁과 균형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라고 해석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선거는 끝났지만 도민을 위한 정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도상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보내주시신 신뢰와 기대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전북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심덕섭 고창군수, 군정 복귀 첫 일정 소화

심덕섭 고창군수가 4일 군정업무 복귀 후 첫 공식일정으로 농번기 농촌일손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심덕섭 군수는 본격적으로 모내기와 수박·복분자·블루베리 수확이 시작됐고,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역 민생경제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군정업무에 복귀하는 첫날부터 민생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대책회의에는 부군수, 국장 실·과·관·소장이 참석해 모내기 현황 및 각 작목별 출하현황,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및 배치현황, 고유

가 상향속 피해가 큰 지역 운송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보고했으며 앞으로의 추진 대책을 논의했다.

고창군은 농촌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해 농가의 인력 부족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투입함으로써 농작업 차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수확기를 맞은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수확철 농촌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4일 군정업무에 복귀한 심덕섭 고창군수가 첫 공식일정으로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있다.

인터뷰 - 무소속 전주시의원 당선인 3명

“민원 접수된 그날 반드시 피드백”

양영환 당선인



정당 생활도 해보지 않은 채 오직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시의원 초선 시절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부딪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을 직접 누비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어느새 건설업체 현장소장급의 실무 지식을 갖추게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의정활동 12년 동안 100건이 넘는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주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정보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받는다.

의정활동 성실성도 돋보인다. 그는 지난 12년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을 사실상 100%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양 당선인은 “기초의원들은 정당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시민 애로 해결이 가장 큰 역할”

채영병 당선인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바 선거구(효지2·3·4동)를 지역구로 둔 채 당선자는 현재까지 줄곧 전주시의회 복지

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해 왔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전주시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꼽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시 외국인 협력 지원 조례 제정에도 앞장섰다.

의정활동 성과도 눈에 띈다. 그는 지금까지 9건의 조례를 제정했으며, 제12대 전주시의회에서 총 28회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최다 발언 의원으로 기록됐다.

채 당선자는 앞으로의 목표로 복지환경위원장 도전을 꼽았다. 이어 “전주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생활정책의 본령은 시민의 삶을 돌보는 것인 만큼 앞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대변”

최영심 당선인



했다. 실제로 이번 출마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권유가 결정적이었다.

최 당선자는 “도의원 시절의 의정활동을 기억하며 지역 현안과 생활민생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시의원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고 지지를 모아 주셨다”며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최 당선자의 정치 입문 배경은 교육현장과 노동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출신으로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여성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불평등 해소를 위해 힘써왔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조례 제정과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의정 활동에 힘써왔다. 그는 “정당의 울타리보다 주민들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챙겨달라는 서신동 지역 어르신들의 권유가 큰 결심의 계기가 됐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만 바라보며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